

전력 및 전기산업의 첨단기술 산업화

「국제전력전자·IT 및 전기설비전」 개최



협회의 발전과 전력기술인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전국의 회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5회 「국제전력전자·IT 및 전기설비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무색해 질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시장에서 국내 전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2003년도부터 「국제전력전자 및 전기설비전」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전시회는 해를 거듭 할수록 참여국가 및 기업의 수가 증가되어 금년에는 그 규모가 약 60%이상 신장되었으며, 정부, 유관 단체, 학계, 업계에서 전시회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력기술인 여러분!

바야흐로 세계는 기업간의 경쟁이 아닌 국가간,



대륙간의 경쟁체제인 글로벌 경쟁 시대이며, 기존의 전기, 전자, 건축, 통신, IT 분야 등 계별적 산업분야가 아닌 전력IT, 전력경제, 전기통신, IT통신 등 분야별 융합·복합화 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정보화 시대' 라고 표현합니다. 현대사회는 변화속도가 기존의 1년, 1달의 단위가 아닌 1분, 1초의 단위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며, 그에 따라 파생되는 정보량과 기술의 발전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정보습득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자명한 만큼,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지니고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협회의 전시회도 '국내·외의 전력신기술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장' 인 만큼 전력기술인 여러분에게 필요한 최신의 기술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전력기술인 여러분!

「국제전력전자·IT 및 전기설비전」이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 전시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전력기술인 및 회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력기술인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사업이 크게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이희평